광주 SK대리점 우르르 '유심' 오픈런… '재고 뚝' 속타는 고객

영업 전부터 대기줄… 매장마다 '재고 소진'

"영업시간 오전 9시 맞춰서 왔는데, 이미 재고가 없다네요."

해킹공격에 따른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무료 교체 첫날인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동 T월드 한 대리점에는 유심을 교체하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대리점에는 1분에 1~2명 꼴로 고객 방문 방문이 이어졌다.

문을 연 지 1시간이 지난 매장에는 입구에 이미 '오늘 유심 재고 소진했습니다' 문구가 부착됐다.

자녀에게 해킹공격 소식을 접하고 부랴부랴 매장을 찾은 어르신은 재고 소진 문구를 보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다른 고객은 "재고 좀 많이 쌓아두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매장 직원은 방문 고객에게 유심 교체 대신 유심 보호 신청을 진행했다.

문의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지만 직원은 줄지어 들어오는 고객들을 응대하느라 분주해보였다.

비슷한 시간대 인근 다른 T대리점도 영업 개시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유심 재고가 동 났다.

고객들이 매장 오픈 시간 수십 분 전부터 줄을 섰고, 선착순대로 보유한 30개를 모두 교체해 재고를 소진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유심 무료 교체 시행 첫날인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T월드 매장에 유심 재고 소진 문구가 부착돼있다.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한다. /뉴시스

T대리점 직원은 "유심이 아직 입고가 안 돼 매장에 보유한 유심으로 교체를 진행했다"며 "내일 유심이 입고될 지도 미지수다"고 전했다.

김모(65)씨는 "유심이 해킹 당해 모바일 뱅킹 계좌까지 털리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30년 가까이 SK텔레콤 고객이었는데,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맘카페와 IT기기 정보 공유 카페에도 지점별 재고 보유 여부와 대기줄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 곳 T월드 매장에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준다. 지난 18일 자정 이전 SK텔레콤에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상이다.

/오권철 기자

전남교육청, '유치원 신규교사 신~나는 날' 운영

교육감과의 대화·맘 컨설턴트 등 공감과 소통의 시간 마련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유치원 신규교사 신나는 날'을 열고, 유치원 교사로 첫걸음을 내딛은 신규교사들을 응원하며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치원 신규교사 41명을 비롯해 맘컨설턴트, 신규교사가 배치된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 도교육청 환영 메시지 시청 ▲ 교육감과의 대화 ▲ 신규교사 소개 ▲ 맘 터칭 컨설팅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교육감과의 신나는 토크'에서는 신규교사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전남교육의 비전을 나눴다. 이어진 '맘 터칭 컨설팅'에서는 맘컨설턴트가 교육과정 운영과 행정업무 등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은 장학사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유치원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한 신규교사는 "교사로서 첫 두 달은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오늘 '신나는 날'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며 "전남교육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신규교사들이 새로운 자리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행사가 전남 유아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든든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불법현수막·도로파임 점검" 광주 안전보안관 집중 활동

광주시가 불법현수막과 도로파임(포트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안전보안관들이 오는 6월까지 두달 동안 불법현수막 등 도로·보행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안전분야 민간단체 회원 34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집중신고기간 도로와 인도 현장 곳곳을 다니며 개인형이동장치(PM) 등 이륜차의 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 도로파임 등 도로 시설물 파손을 집중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예정이다.

안전보안관들은 또 생활주변 위험요소 점검 및 신고, 안전위반행위 공익신고 및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7대 안전무시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다.

이부호 안전정책관은 "안전보안관들과 함께 생활주변을 돌며 촘촘하고 적극적으로 안전 위해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전민규 기자

기관 사칭 물품구매 사기 주의하세요

전남소방, 유사사례 의심시 해당기관 진위여부 확인 당부

전남소방본부는 최근 관공서를 사칭해 민간업체를 상대로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름에 따라 유사 사례 의심 시 즉시 해당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5일 목포와 광양의 3개 업체에서 전남소방본부를 사칭해 회식 관련 장어를 사전에 주문하고, 위조된 공문서와 물품지급 결제 확약서 문자를 전달받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음식점 관계자가 소방본부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 실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기 범죄가 전국 소방본부를 비롯해 군과 교도소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전남소방본부는 해당 사례를 각 기관과 업소에 공유하고 각별히 주의할 것을 지도 관리하고 있다.

소방기관의 경우 일반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문자로 구매 지시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공문이나 거래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지속해서 관련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전남도,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6월부터 신규 지급

65세 이상 160여 명 매월 6만원… 7월15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전남도가 민주화에 헌신한 도민을 예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6월부터 매월 6만 원씩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생계가 어려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계지원비를 지급했으나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명예수당을 새로 지급키로 했다. 수당은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이며, 전남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생계지원비를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안된다. 현재 전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160여 명이다.

전남도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현수막과 포스터,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전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6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매월 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내·외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거 이 땅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앞장섰던 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사회가 드리는 존경과 감사의 표현으로 늦었지만 따뜻한 예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와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 생활지원금, 장제비, 가사도우미와 교통부름이 등도 지원하고 있다. /이승원 기자